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25-33, 2016 http://dx.doi.org/10.15207/JKCS.2016.7.3.025

일부지역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행위가 감정노동과 삶의 질, 직무만족에 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

박영남, 윤성욱*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some local dental hygienist convergence impact on emotional labor, quality of life, job satisfaction

Young-Nam Park, Sung-Uk Yoon*
Dep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 293명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WIN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건강증진행위의 10문항 중 '나는 문제와 걱정거리를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가 3.25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는 높은 연령과 학력, 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은 근무경력이 짧은 경우와 가장 긴 경우, 높은 학력, 의원급에서 높았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삶의 질은 높은 연령과 학력, 의원급, 수입 2501-3000만원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높은 연령과 학력, 기혼, 의원급, 수입 2501-3000만원이 높았다. 건강증진행위와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와의 산관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와 건강증진행위의 회귀분석 결과 Y(건강증진행위)= 1.452 + 0.318(삶의 질)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증진행위를 높이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건강증진행위, 감정노동, 융합, 삶의 질, 직무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relations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emotional labor, quality of life, and job satisfaction among 293 dental hygienists of Daegu and Kyeongbuk areas. This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win 12.0 program.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10 item, The highest 3.25 points on 'I consult close people to me for my problems and worries'. Health promoting behavior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higher according to older age, better educational, general hospital. Emotional labor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high according to duration of service was short or the longest, high educational, worked at a clinic.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higher according to older age, had better educational, worked at a clinic, income of 2501-3000 thousand wo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high when they were in older age, high educational, were married, worked at a clinic, income of 2501-3000 thousand won. Health promoting behavior ha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ir emotional labor, quality of life, and job satisfaction.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Y(Health promotion behavior)= 1.452+ 0.318(Quality of life). Therefor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dental hygienist should be made health promoting education.

• Key Words : Health promotion behavior, Emotional labor, Convergent, Quality of life, Job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윤성욱(sunguk3794@naver.com)
Received Mach 29, 2016 Revised April 30, 2016
Accepted May 04, 2016 Published June 30, 2016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의료기관의 인력은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영자원으로 생산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1]. 의료기관 전문인력 중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들은 대부분이 장시간에 걸쳐 고정 자세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1],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서 병원종사자 중 감정노동의 수행 정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치과위생사라고 보고된 바와 같이[2]. 업무로 인한 긴장감으로 정서적인 피로감도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치과의료기관의 중요한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건강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Lalonde [3]는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으며 그 영향력은 유전적 요소 20%, 환경적 요인 20%, 개인의 생활습관 51%, 의료서비스 8%라고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를 볼 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의료서비스의 강화보다는 환경적인 조성과 개인의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건강을 증진하는데 큰 작용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4]. 이러한 환경의 조성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건강증진행위는 만성질환 발생률 감소와 수명을 연장, 건강관리 비용 절감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잠재적,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천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국민건강 생활지침이 개정된 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정진하게 되었다[5]. 즉 건강증진은 현재의 건강을 보다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행위로부터 보다 나은 자아를 유지 및 증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자아활동에 이르는 생명에 관계된 총체적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다[6]. 또한 개인의 환경이나 건강습관을 변화시켜 높은 수준의 안녕을 향해 나아가는 건강관리를 말하며 건강과 관련된 지식, 태도, 행위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개념으로 개인의 생활방식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7]. 이러한 건강증진행위는 수명을 연장시키는 역할과 더불어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전반적인 안녕 수준을 높이며[8], 또한 낮은 건강증진행위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소진을 높이는 요소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 직무소진은 직무 만족도와도 연관된 요소로 건강증진행위는 직무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치과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9],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10,11,12], 직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연구는[13,14] 다수 수행되어 왔으나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행위가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와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의 융합적인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위생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건강증징행위와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셋째.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의 변수가 건강증진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를 하였으며 이 중 불충분한 응답자 7부을 제외한 여성 치과위생가 293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2.2 연구방법

조사내용의 설문지는 구강보건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20명의 대상자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한 후 일반적인 특징 7문항, 건강증진행위 10문항, 감정노동 9문항, 삶의 질 10문항, 직무만족도 5문항으로 구성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증진행위 측정도구는 이[1]의 연구에서 제시한 설문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766이었다. 감정노동은 Morris와 Feldman[15]의 감정노동 도구를 호텔종업원의 감정노동의 측정하기 위해 김[16]이 보완 수정한 감정노동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642이었다. 삶의 질은 정[14]이 측정한 설문도구를 참조 및 수정하여 10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907이었다. 직무만족도는 김과 조[18]의 설문도구를 참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934이었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a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는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 검증을 하였다. 평균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Turkey의 HSD 방법 사후분석을 하였다. 건강증진행위와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와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 실시하였다. 검정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측정도구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전체 여성 치과위생사 293명이며 연령은 20-25세가 94(32.1%)명, 경력은 1-5년 138(47.14%)명으로 많았다.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 210(71.7%)명, 결혼여부는 미혼이 186(63.56%)명으로 높게 분포되었다. 의료기관 종류는 치과병원급이 171(58.4%)명, 수입은 2000-2500만원이 116(39.6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는 197(67.2%)명이 한다고 응답하였고 흡연은 290(99.0%)명이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3.2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연구대상자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증진행위의 전체 평균은 2.49이며 10문항 중 '나는 문제와 걱정거리를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가 5점 만점 중 3.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의미 있고 만족스런 관계를 유지한다.'가 3.06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계획된 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운동한다.'가 1.91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Characterization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Job	dental hygienist(female)	293	100.0
Age	20-25	94	32.1
	26-30	88	30.0
	31-35	54	18.4
	35<	57	19.5
Working Experience	1-5 years	138	47.1
	6-10 years	80	27.3
	10 years<	75	25.6
Education	College	210	71.7
	University	83	28.3
Marital Status	Married	186	63.5
	Not married	107	36.5
Type of service	General Hospital(University Hospital)	16	5.5
	Dental Hospital	171	58.4
	Dental171 Clinic	106	36.2
Income	<2000 thousand won	48	16.4
	2000-2500 thousand won	116	39.6
	2501-3000 thousand won	57	19.5
	3000< thousand won	72	24.5

<Table 2>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Emotional Labor of subjects

Health Promoting Behavior	Mean(SD)	Standing
1.I consult close people to me for my problems and worries	3.25(.89)	1
2. I choose foods with less fat, saturated fat, cholesterol	2.17(1.01)	8
3. Consult a doctor when I state that there is a body unusual signs and symptoms	2.34(.90)	6
4. I exercise on a planned exercise program	1.91(.89)	10
5. I sleep enough.	2.31(.88)	7
6. I feel myself that this change in a positive way.	2.49(.89	5
7. I am looking for pieces of information relating to health	2.57(.97)	4
8. I am limited to sugar and sugar-containing foods	1.93(.85)	9
9. I keep to have meaning and satisfactory relationship with others	3.06(.81)	2
10.I use right method for me to stress conditioning	2.81(.89)	3
Total	2.49(.57)	

<Table 3>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Emotional Lab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Health Promoting Behavior Mean(SD)	p -value	Emotional Labor Mean(SD)	p -value
Age	20-25	2.54(.55)	.004**	2.85(.77)	.166
	26-30	2.48(.53)		2.74(.73)	
	31-35	2.32(.39)[b]		2.80(.72)	
	35<	2.67(.49)[a]		3.02(.57)	
Working Experience	1-5 years	2.46(.52)	.842	2.94(.77)[a]	.000***
	6-10 years	2.49(.55)		2.55(.61)[b]	
	10 years<	2.51(.47)		2.97(.64)[a]	
Education	College	2.42(.48)	.002**	2.61(.54)	.002**
	University	2.63(.57)		3.27(.63)	
Marital Status	Married	2.47(.48)	.617	2.80(.76)	.226
	Not married	2.50(.56)		2.91(.64)	
Type of service	General Hospital(University Hospital)	2.61(.72)	.010*	2.79(.50)	.000***
	Dental Hospital	2.40(.45)		2.69(.62)[b]	
	Dental Clinic	2.59(.55)		3.09(.81)[a]	
Income	<2000 thousand won	2.50(.45)	.172	2.87(.81)	.988
	2000-2500 thousand won	2.48(.54)		2.85(.71)	
	2501-3000 thousand won	2.59(.60)		2.82(.79)	
	3000< thousand won	2.38(.42)		2.84(.59)	
	Total Mean(SD)	2.49(.57)		2.85(.72)	

*p<.05 **p<.01 ***p<.001

3.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와 감정노동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의 결과에서 았다. 학력은 대학 졸업 2.63으로 전문대 졸업 2.42보다 높았다(p<.05). 의료기관 종류는 종합병원(대학병원)이 2.61로 가장 높았다(p<.05). 수입은 2501-3000만원이 2.59로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감정노동은 연령에서 35세 이상이 3.02로 높았으며,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2.97로 가장 높았다(p<.05). 학력은 대학졸업이 3.27로 전문대 졸업 2.61보다 높았다(p<.05). 결혼여부는 기혼이 2.91로 미혼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의료기관 종류는 치과의원이 3.09로 가장 높았다(p<.05). 수입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3.4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삶의 질과 직무만족도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삶의 질의 결과는 연령은 35세 이상은 2.99로 가장 높았으며(p<.05), 근무 경력은 10년 초과인 경우 2.86으로 다소 높았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3.27로 전문대 졸업 2.61보다 높게 나타났다(p<.05). 결혼여부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높았다. 의료기관 종류는 치

<Table 4> Quality of Life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zation	Division	Quality of Life Mean(SD)	p -value	Job Satisfaction Mean(SD)	p -value
Age	20-25	2.69(.48)	.040*	2.71(.49)[b]	.000***
	26-30	2.76(.66)		2.68(.54)[b]	
	31-35	2.83(.69)		2.80(.92)[b]	
	35<	2.99(.75)		3.32(.84)[a]	
Working Experience	1-5 years	2.78(.61)	.578	2.77(.67)	.085
	6-10 years	2.77(.58)		2.81(.56)	
	10 years<	2.86(.75)		2.99(.91)	
Education	College	2.61(.54)	.000***	2.61.56)	.000***
	University	3.27(.63)		3.42(.74)	
Marital Status	Married	2.75(.62)	.072	2.70(.66)	.000***
	Not married	2.89(.67)		3.08(.75)	
Type of service	General Hospital(University Hospital)	2.62(.77)[b]	.000***	2.96(.94)	.000***
	Dental Hospital	2.66(.48)[b]		2.64(.54)[b]	
	Dental Clinic	3.05(.76)[a]		3.14(.82)[a]	
Income	<2000 thousand won	2.87(.63)	.018*	2.94(.87)	.003***
	2000-2500 thousand won	2.70(.58)		2.67(.59)[b]	
	2501-3000 thousand won	3.01(.76)		3.08(.81)[a]	
	3000< thousand won	2.73(.60)		2.84(.65)	
Total Mean(SD)		2.80(.64)		2.84(.72)	

*p<.05 **p<.01 ***p<.0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emotional labor, quality of life, job satisfaction

Division	Health Promoting Behavior	Emotional Labor	Quality of Life	Job Satisfaction
Emotional Labor	.141*	1		
Quality of Life	.435**	.266**	1	
Job Satisfaction	.348**	.211**	.758**	1

*p<.05 **p<.01 ***p<.0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emotional labor, quality of life, job satisfaction

Model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alue
	B	The standard error	Beta		
(Constant)	1.452	.148		9.796	.000
Emotional Labor	.019	039	.027	.488	.626
Quality of Life	.318	.066	.395	4.801	.000***
Job Satisfaction	.031	.08	.043	.529	.597

*p<.05 **p<.01 ***p<.001 b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 subordination variable: Health promoting behavior F: 22.682 p: 0.000 R:0. 437 R2: 0.182

과의원이 3.05로 가장 높았다(p<.05). 수입은2501-3000만원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서 연령은 35세 초과에서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p<.05), 근무 경력은 10년 초과가 2.99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졸업자가 3.42로 전문대 졸업자 2.61보다 높았다(p<.05). 결혼여부는 미혼이 3.08로 높았고(p<.05), 의료기관 종류는 치과의원이 3.14로 가장 높게 분포하였다. 수입은 2501-3000만원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Table 4>.

3.5 건강증진행위와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의 상관관계

건강증진행위와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와의 융합적인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 결과 건강증진행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서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와 높아짐에 따라 건강증진도 융합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p<.05)<Table 5>.

3.5 건강증진행위,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와의 회귀분석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

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삶의 질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318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삶의 질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라 할 수 있으며 그 회귀모형 식은 Y(건강증진행위)= 1.452 + 0.318(삶의 질)로 분석되었다. 즉 삶의 질이 높은 경우 건강증진행위도 높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p<.05$)<Table 6>.

4. 고찰 및 결론

구강질환의 예방 및 교육 업무로 양질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를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과위생사는[19]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다른 의료종사자들에 비해 더 심각하다[20].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치과위생사의 건강증진행위와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 전체 평균은 2.49이며 10문항 중 '나는 문제와 걱정거리를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가 3.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계획된 운동프로그램에 따라 운동한다.'가 1.9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21]은 위생적인 생활이 3.2,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운동 및 활동이 2.2로 가장 낮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규칙적인 운동은 시간적인 여유와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실천할 있는 요소이므로 가장 하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에서 연령, 학력, 의료기관 종류가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p<.05$). 연령은 35세 이상인 경우 즉 연령이 높은 경우, 학력도 높은 경우 건강증진행위가 높았다. 김[5]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에서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행위에서도 연령과 학력이 높은 경우 건강증진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위축되리라 생각하며 그에 따라 건강증진행위가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박정숙 외[22]은 건강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건강증진행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교육을 받을 기회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여 학력의 정도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대학병원)이 2.61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원이 2.40으로 낮았다. 홍수민 외[23]는 의료기관 종류 중 치과대학병원의 건강상태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듯이 치과대학병원의 높은 건강증진행위의 영향이라고 해석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은 근무경력, 학력, 의료기관 종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p<.05$). 경력은 1-5년과 10년 초과가 높았으며 6-10년이 낮았다. 한[24]의 연구에서는 낮은 경력에서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윤[25]은 초임 치과위생사인 경우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에 비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낮은 경력인 경우 직장에 대한 인간관계와 역할의 적응능력 형성이 부족하여 감정노동이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경력이 많은 경우는 진료부서보다는 환자상담에서 근무를 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환자와의 갈등문제로 감정노동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전문대 졸업보다 감정노동이 높았다. 최혜정 외[26]는 학력이 높은 경우 감정노동이 높았으며 이는 학력이 높은 경우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동료 치과위생사와 원만한 관계형성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의료기관의 종류는 치과의원급이 치과병원급 이상보다 감정노동이 높았으며 이는 최혜정 외[26]의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삶의 질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은 경우, 의료기관 종류가 의원급인 경우, 수입은 2501-3000만원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5$). 연령과 학력은 김[27]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연령과 수입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이 높아지므로 수입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되며 경제적인 안정감과 성취감으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 또한 높은 경우 성취감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 외[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정수빈 외[28]은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직무만족도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높은 직무만족도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해석된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도는 연령, 학력, 결혼여부, 의원급인 경우, 수입이 2501-3000만원인 경우 즉 비교적 높은 경우 유의성을 나타냈다($p<.05$). 연령과 수입은 높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력이 높을수록 연령과 수입은 높으며 이에 따른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전문대 졸업에 비해 높았다. 즉 학력은 직무에 대한 정보

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어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높았으며 의료기관의 종류는 의원급이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이영수 외[11]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낮고, 의원급이 병원급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기혼과 의원급에서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증진행위와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와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한 결과 건강증진행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는 융합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p<.05$). 건강증진행위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적절한 감정노동은 환자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본인의 직무만족도도 높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복되는 감정노동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높임으로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건강증진행위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한다. 감정노동, 삶의 질, 직무만족도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결과 Y(건강증진행위)= 1.452 + 0.318(삶의 질)로 분석되었으며($p<.05$), 삶의 질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318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삶의 질이 높은 경우 건강증진행위도 높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며 이는 김[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건강증진행위로 인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치과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는 직무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건강증진행위로 행해지는 여러 부분 중에 영양적인 섭취와 운동부분을 강화하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직원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 배려가 있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지 못한 점과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설문한 내용으로 일반화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져 본 연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MENTS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Gim Cheon University.

REFERENCES

[1] B. H. Le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Burnout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of Dental Hygienists”, Korea Society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 5, NO. 3, pp. 111-212, 2011.

[2] Korea Dental Association, “News 1835. A dental hygienist has high intensity of emotion restrain. Korean Dental Association”, Seoul, 2010.

[3] M. Lalonde, “A new perspective on the healthof Canadians: A working document Ottawa”, 1974.

[4] G.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Promotion Activity among Dental Hygienist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11.

[5] M. K. Kim,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moting behavior indices and quality of life indic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1.

[6] S. C. Laffrey, “An exploration of adulth health behavior”, Weaterm Journal of Nursion Reserch, Vol. 12, NO. 4, pp. 434-444, 1990.

[7] B. H. Brubaker, “Health promotion: a linguistic analysis”, ANS Av Num Sci, Vol. 5, NO. 3, pp. 1-14, 1983.

[8] N. J. Pender,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 Norwaik, CT”, Appleton and lange, pp. 76-79, 1982.

[9] M. S. Shin, H. J. Moon, J. T. Lee, “A Study o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Dental Hygiene Students: the case of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8, NO. 2, pp. 73-80, 2008.

[10] S. U. Yoon, J. S. Kim, “Relations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among some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Vol. 11, NO. 2, pp. 179-188, 2011.

[11] Y. S. Lee, J. H. Jang, A. E. Moon,,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stress on job satisfaction in oral health professional, Journal of Korean Societ Dental Hygiene, Vol. 11, NO 5, pp. 823-831, 2011.

[12] M. S. Choi, D. H. Ji, "The comparative study on changes i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the convergence mediating factors and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7-34, 2015.

[13] H. R. Jung, A. R. Son, Y. J. Yun, S. H. Lee, S. B Lee, J. A. In, K. h. Kang, "Study on self-development needs, job satisfaction,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dental hygienis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31-239, 2015.

[14] K. A. Jang, H. S. Lee, "Factors Affecting the Self Esteem of a Convergence Dental Hygienis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77-186, 2015.

[15] J. A. Morrs, D. C. Feldman,,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 Mana Rev, Vol. 21, NO 4, pp. 986-1010, 1996

[16] M. J. Kim, "Research Articles : Effects of the Hotel Employee's Emotional Labor upon the Job -related Attitudes",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Vol. 21, NO. 2, pp. 129-141, 1998.

[17] E. K. Jeong, "(A) study on the effect of health promoting lifestyle on the quality of life in hospital employees", Korean J. of Preventive Medicine,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2000.

[18] K. E. Kim, S. D. Cho,, "Effects of service employees' goal and customer orientation on emotional labor and job satisfation.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Vol. 21, NO. 1, pp. 1-21, 2013.

[19] H. Y. Kim, J. O. Choi, M. G.. Seong.,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Dental Hygiene, Vol. 12, NO. 1, pp. 213-223, 2012.

[20] Y.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Health Habits in Industrial Worker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 23, NO. 1, pp. 33-42, 1990.

[21] Y. S. Kim, "An Analytical Study of the Quality of Life in Dental Hygienists in Seou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5, NO. 1, pp. 39-43, 2005.

[22] J. S. Park, C. J. Park, Y. S. Kwon, "The Effect of Health Education on the Performance of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2, pp. 359-371, 1996.

[23] S. M. Hong, H. K. Kim, Y. S. Ahn, "A Study on the Occupational Stress, Health Status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ist,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pp. 295-302, 2009.

[24] S. Y. Han,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contents, Depression in dental hygienists in D City",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0, NO. 11, pp. 3487-3492, 2009.

[25] H. K. Yun, "Effect of Newly Appointed Dental Hygienists' Job Stress on Organization Effectivenes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2, pp. 442-449, 2014.

[26] H. J. Choi, H. J. Bang, E. Y. Chung, Y. J. Seo, "Factors That Affect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14, NO. 3, pp. 295-301, 2014

[27] Y. S. Kim, "An Analytical Study of the Quality of Life in Dental Hygienists in Seoul",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 5, NO. 1, pp. 39-43, 2005.

[28] S. B. Jeong,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n burnout,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clinical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Vol. 38, NO. 1, pp. 50-58, 2014.

저자소개

박 영 남(Young-Nam Park) [정회원]

- 2008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석사)
- 2011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의학과(치의학박사)
- 2013년 3월~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진료지원 융합, 보건행정 융합, 기타 의과학 관련

윤 성 욱(Sung-Uk Yoon) [정회원]

- 2003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위생과학과(보건학석사)
- 2013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진료지원 융합, 보건행정 융합, 기타 의과학 관련